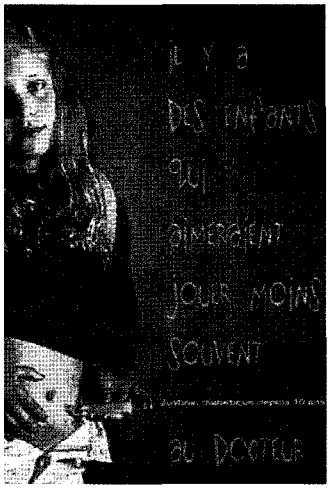
세계의 당뇨소식

프랑스 - 당뇨병협회 2002년 캠페인

프랑스 당뇨병협회가 당뇨병학 연구와 연구원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를 위해 새로운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슬로건과 그를 동반한 영상은 까만 바닥 위에 설탕 조각들로 상징된 도로에 "위험한 추월 : 지나친 설탕 = 위험"이란 구호가 새겨져 있다.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주행 내내 주의를 기울이듯, 당뇨병 환자들도 매순간 주의를 해야 한다는 메세지다.



프랑스 당뇨병협회는 1998년 최초로, 설탕통을 상징화시킨 캠페인을 벌였는데, "상자에 든 당뇨병"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각 당뇨병 환자들에게 잊지 않고 언제나 손가방에 소지하라는 비유적인 메세지를 전달했다. 2000년에는 사진작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여러 도시들에서 책가방을 등에 맨 11살의 소녀가 배에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진과 함께, "병원놀이를 즐기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강한 메세지를 남겼다. 이어 2001년 캠페인에는 아이의 배 위에 새겨진 "무관심, 당뇨병이 그에게 주사를 놓을 것이다"라는 영상을 전달했다.

당뇨병협회는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일반의 여론조성을 위해 올해로 제 4차 캠페인을 벌인다. 특히 고혈당으로 눈, 콩팥, 신경, 동맥에 생기는 합병증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뿐 아니라 광고판을 이용해 전개한다.

이전의 캠페인들 덕분에 당뇨병협회는 지난 3년간 5백만 프랑(763,000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를 재정지원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환자의 회복을 목표로 연구의 길을 다원화시킬 예정이다. 당뇨병협회의 정례총회 때는 총 30만 유로에 해당하는 새로운 연구원들에 대한 장학금이 수여되는데, 당뇨병협회는 주사에 의한 치료를 피하기 위해 인슐린을 생산하고 이식될 수 있는 세포발견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당뇨병 환자, 실명 유발 질환 발생률 높아

미국 당뇨병협회 주최 제 62차 과학 세션 기간 동안 발표된 한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은 시력손실과 실명을 유발하는 안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고 한다.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없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미국에서 실명, 시력손상, 주요 실명유발 안질환의 유병률은 이전에 기술된 바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미국 질병조절 및 예방센터에 있는 사딘 박사는 두 개의 대표적인 국가적 조사로부터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스스로 당뇨병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보다 실명이 될 가능성(1.4% : 0.6%), 심한 시력손상이 될 가능성(12.6% : 4.6%), 백내장이 발생할 가능성(26.4% : 14.9%), 녹내장이 될 가능성(6.9% : 3.6%), 그리고 황반변성이 발생할 가능성(3.6% : 2.2%)이 더 많았다. 당뇨병을 가진 사

람들 중 25%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이는 모든 시각적 문제들과 강력히 관련되었다. 나이를 보정한 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시력 문제를 더 많이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백내장과 황반변성은 다른 인종들에 비해 백인에서 더 유병률이 높았다. 녹내장은 백인들보다 흑인들과 히스패닉계에서 더 유병률이 높았다.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은 연구 대상자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에 비해 더 많은 시력 문제들을 가졌다.

사딘 박사는 "연구결과는 당뇨병 환자들에서 눈 보호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개선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에서 시력손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안질환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강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당뇨병 여성,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높다

제 2형 당뇨병 여성은 건강한 여성에 비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4.5배와 2배 각각 높으며 이들은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위험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의 프랭크 후 박사는 '당뇨병 치료' 최신호 연구보고서에서 1976년부터 117,629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작된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조사가 시작되었을 당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가 1,508명이었는데 이후 20년 사이에 5,894명으로 늘었고 1,556명의 심장마비 환자와 1,405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 또 815명이 심장병으로, 300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후 박사는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심장마비 위험이 4배 가까이 높았으며 당뇨병이 발병했을 때는 4.5배로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뇌졸중 위험도 마찬가지로 당뇨병 발병 이전에 2배 정도 높아졌다가 당뇨병 증세가 나타난 후에는 조금 더 높아졌다고 후 박사는 말했다.

후 박사는 이는 당뇨병 소지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뇨병 가족력이 있고 과체중인 사람은 미리 당뇨병의 예고신호인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식사와 운동요법, 혈압관리 등을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후 박사는 말했다.